

전병두 최고 구속 145km '팡팡'

5이닝 4K 무실점 호투 KIA, 롯데에 4-0 승리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가 '투급 좌완' 전병두의 호투소로 시범경기 공동 1위를 달리던 롯데의 질주를 가로 막았다.

KIA는 28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시범경기에서 선발 전병두의 호투와 장성호의 솔로홈런에 힘입어 4-0으로 승리했다. KIA 마무리 한기주는 1.1이닝 1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전병두는 이날 최고 구속 145km의 위력적인 직구를 앞세워 5이닝 2피안타, 2볼넷, 4탈삼진, 무실점으로 롯데 타선을 틀어막으며 올 시즌 선발 투수로서 성공 가능성을 예고했다.

전병두는 지난 17일 SK전 2이닝 무안타, 1볼넷, 3탈삼진, 무실점에 이어 21일 LG전에서는 4이닝 3피안타, 1볼넷, 2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는 등 안정된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타선에선 장성호와 이재주가 각각 4타수 2안타, 1타점으로 맹타를 휘둘렀다. 주장 이종범도 1타점 좌월 2루타로 타선에 힘을 보탤었다.

KIA는 2회초 이계주-이현근-손지환의 연속안타로 만든 무사 만루 찬스에서 김삼훈의 병살타로 선취점을 뽑았다. 이어 9번 이종범의 좌익수 키를 넘기는 적시 2루타로 1



"휴~ 겨우 살았네" 28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시범경기 롯데-KIA 경기에서 KIA 이용규가 1회초 1사때 1루에 출루한 뒤 롯데 선발 이상목의 견제구에 슬라이딩으로 귀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점을 추가했다.

8회초에는 장성호가 롯데의 바뀐 투수 임경완의 싱커를 통타, 비거리 115m짜리 우월 솔로 홈런을 터트리며 롯데의 추격의지를 꺾었다.

서정환 KIA 감독은 이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지난해엔 좌완투수가 없어 마운드 운영이 어려웠는데, 올 시즌엔 진민호, 양현종 등이 잘 해주고 있다. 원포인트나 중간 릴리프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병두도 갈수록 기량이 향상되고 있다"며 흐릿한 표정을 지었다.

서 감독은 그러나 "김진우, 예서튼 등 선

발 투수들이 빨리 제 구위를 찾아야 한다. 타선에선 서튼, 이용규, 홍세완 등 중심 타선이 제 페이스를 찾지 못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삼성은 수원에서 현대에 2-1, 7회 강우 콜드 게임승을 거뒀고, 마산에서는 두산이 김동주의 좌월 솔로포와 8회 고영민의 좌월 1타점 결승 2루타를 앞세워 LG를 2-1로 눌렀다.

SK는 대타 김재구의 역전 투런 결승포로 4-3 뒤집기 승리를 거두며 중간 순위 선두로 올라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경제 파급 효과 5천억원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구 유치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가 대구시로 확정된 뒤 많은 뒷얘기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한때 유치위 해산도 고민=유치위는 작년 3월 모나코 IAAF 본부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직후 굉장한 9개 도시가 경쟁에 뛰어났는데 지명도에서 대구가 가장 밀리는데다 선풍 나서겠다는 스폰서까지 나타나지 않자 차리리 포기하는 게 낫다는 견해도 있었다고 한다.

▲달구벌에만 오면 우리 편=28일 화이트샌즈호텔에서 열린 대구 승리 자축 연에는 그동안 대구를 지지해온 '친한파' 집행이사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세사르 모레노 브라보(멕시코) 기술임원과 헬무트 디젤(독일) 부회장 등이 주인공이다. 지난달 IAAF 실사단(단장 헬무트 디젤 IAAF 부회장·독일)의 대구 방문 때 디젤 단장은 구두가 발에 맞지 않아 발 통증을 호소했다고 한다. 대구시는 즉각 의료진을 보내 진료하도록 한 뒤 발이 편한 새 구두를 제공했다.

▲15세 다슬이가 '미녀새' 이겼다=대구 대표단의 최연소 단원은 15세 육상 꿈나무 강다슬(경기 덕계중)이었다.

27일 진행된 대구의 최종 프리젠테이션(PT)에서 강다슬이 맡은 역할은 한국의 육상 꿈나무 중 대표 주자로서 한국 국

상의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모스크바(러시아) 대표단의 경쟁자는 '미녀새' 옐레나 이신바예바(25)였다.

이신바예바는 모스크바의 유치 당위성을 역설하는 짧은 연설로 모스크바의 유치전에 힘을 보탤었다. 이신바예바는 모스크바가 2013년 개최지로 선정돼 제 몫을 하긴 했지만 다슬이와 한 관 승부에선 패배한 셈이다.

▲경제 파급효과만 5천여억원=이같은 우여곡절 끝에 세계육상을 유치한 대구는 도시 브랜드를 국제적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물론 5천여억원의 경제파급 효과 및 5천여명의 일자리 마련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8일 광주 ABC볼링장에서 열린 2007년도 볼링국가대표 여자 선발 결승전에서 선수들이 힘차게 투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광주 벨인퍼컴 윤희여·홍수연·이나영

볼링 태극마크 달다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광주 벨인퍼컴 여자볼링팀 윤희여(21)·홍수연(22)·이나영(20)이 태극마크를 달았다. 윤희여는 28일 광주 ABC볼링장에서 열린 2007년 볼링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경기에서 평균 213.1점을 기록해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홍수연과 이나영도 각각 211.2점, 207.5점을 기록해 태극마크를 달게됐다. 이로써 광주 벨인퍼컴 여자볼링팀은 6명 중 기존의 국가대표인 김여진(27)과 더불어 4명의 국가대표를 보유하게 돼 전국최강의 전력을 갖추게 됐다. 또한 이들은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리는 광주전국체전에서 여자부

볼링종합우승에 과반불을 졌다.

고교 2학년때부터 줄곧 태극마크를 달아 온 김여진은 실업 6년차로 대표팀 맏언니다. 지난 98년 방콕아시안게임,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등에 3번이나 출전했다.

홍수연은 지난해 제21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볼링대회 2·3인조전에서 1위를 했다. 이나영과 윤희여는 지난 2월 청소년국가대표에 선발된 뒤 곧바로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경쟁사를 누리게 됐다.

조종국(48) 광주 볼링협회 부회장은 "선수들이 최대한 기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운동환경을 조성해 광주 전국체전에서 반드시 종합우승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시즌 초반 좌투수 넘어라"

이승엽 개막전 등 9경기 왼쪽투수와 맞대결 예상

30일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와 일본프로야구 센트럴리그 개막전을 앞둔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시즌 초반 좌투수와 릴레이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투문지 '스포츠투치'는 28일 인터넷판에서 하라 다쓰노리 요미우리 감독이 초반 9게임에서 상대 팀이 좌투수를 잇달아 선발로 내보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좌타자로 좌투수를 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요미우리는 요코하마와 3연전이 끝난 뒤

주니치 드래곤스, 한신 타이거스 등 강팀과 6연전을 치른다.

지난해 좌투수 상대 팀 타율이 0.249에 불과했던 요미우리를 맞아 상대팀은 좌투수를 선발 카드로 적절하게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깜짝' 오가사와라로부터 좌투수 공략법을 배우고 싶다고 밝힌 이승엽이 왼손 투수를 넘어 시원한 득점타를 쏟아낼 수 있을지 기대된다.

한편 올해 센트럴리그는 팀당 144경기로 각 구단별로 맞대결은 24경기다.

요미우리의 이승엽과 주니치 드래곤스의 토타자가 예상되는 이병규(33)는 4월3일 도쿄돔에서 열리는 3연전을 시작으로 올해 최대 24차례 맞붙게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29일(목)
 - ▲06/07 NBA<토론토-마이애미>(08:00·SBS스포츠)
 - ▲프로야구 시범경기<삼성-LG>(12:50·SBS스포츠·MBC ESPN), <한화-KIA>(13:00·KBSN SPORTS)
 - ▲세계수영선수권 대회(13:30·KBS2)
 - ▲여자프로농구 챔피언결정 1차전(13:50·MBC)
- 30일(금)
 - ▲PGA투어 쉘 휴스턴 오픈 1R(04:00·SBS스포츠)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 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학원

이서울·서울종합고시원·광주·성북·수원·호남·대전·전남·전북·전주·전통·과거·특별·계천·제천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저자작강*

4월 2일 첫수업(주말·어린) ·짜짜자 무료수강생 어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 1위! *서울행정고시학원

☎ 361-8111

(주)마우당상사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결핵도" 원적회산 실험난방이 적합합니다.

KJ/승온 3,000~4,000kWh, 천연가스 2배 절약, 전기 3배 절약, 연료비 5배 절약, 난방비 5배 절약, 원적회산 실험난방이 적합합니다.

KJ/승온 3,000~4,000kWh, 천연가스 2배 절약, 전기 3배 절약, 연료비 5배 절약, 난방비 5배 절약, 원적회산 실험난방이 적합합니다.

KJ/승온 3,000~4,000kWh, 천연가스 2배 절약, 전기 3배 절약, 연료비 5배 절약, 난방비 5배 절약, 원적회산 실험난방이 적합합니다.

(주)마우당상사

TEL 1062)282-0101

Clean Hospital

병원내 발생하는 각종 병내물
밀림히 깨끗해 드립니다.

Biothys Asia

1062)531-3377, 3399

* 생물학 (02)343-3398 * 운전면허 (02)344-6776 * 차수업 (02)3-6331